

예수님을 만나다 : “나는 참 포도나무요” (요한복음 15 장)

1.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심어져 있는 포도나무로 표현한다.
 - 시편 80:8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, 못 나라를 몰아내시고, 그것을 심으셨습니다. 9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,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.
 - 하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하신다.
 - 예레미야 2:21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.
2.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지만,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켜 참 포도나무로 완성하신다.
 -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이다. (요한복음 5:5)
 - 참 포도나무에 다시 붙음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.
3.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우리는 결국 죽고 만다.
 -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, 그는 쓸모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.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,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. (요 15:6)
4.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만 가지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.
 -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이다.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,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,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.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(요 15:5)
 -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,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. (요 15:8)
5.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.
 -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,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.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,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. (요 15:10) 내 계명은 이것이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,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 (요 15:12)
 -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,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,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. (요 15:11)
6.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지만,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고,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.
 -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,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. (요 15:26)